

유엔, 아프간 '인도적 재앙' 경고

“내년 어린이 절반 영양실조”

“기본 서비스 완전붕괴 위기”

사무총장 국제사회 도움 호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촉구했다고 AP, AFP 통신이 보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아프간에서 깊어진 인도주의적, 경제적 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아프간에서 기본적 서비스가 완전히

붕괴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어느 때보다 아프간 어린이와 여성, 남성에게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유엔) 모든 회원국이 암흑의 시간에 도움이 필요한 아프간인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4개월에 걸쳐 아프간에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며 유엔이 다음 주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프간 인구의 거의 절반인 1800만명에게 생존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프간인 3명 중 1명은 끼니 걱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프간에서 5세 미만 어린

이의 과반이 내년엔 급성 영양실조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프간) 사람들은 매일 기본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잃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가뭄과 찾아올 혹독한 겨울을 생각할 때 아프간인들에게 추가로 음식과 쉼터, 보건의료 등이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은 지난 15일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장악한 뒤 아프간 정부를 상대로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 정부는 30일 아프간에서 미군의 철수 완료 발표하면서 20년간 진행된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9살·14살 남매 가상화폐 채굴로 월 3500만원 벌어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이산 타쿠르(14·고1)와 여동생 안야(9·초등학교 4학년) 남매가 가상화폐 채굴로 월 3만달러(3478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미 경제매체인 CNBC 방송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타쿠르 남매는 투자은행 출신의 부친 매니시 라지의 도움과 유튜브를 이용한 학습으로 올해 4월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채굴을 시작했다.

처음에 자신들의 방에서 시작한 채굴 작업은 이후 주장을 거쳐 한 데이터센터를 빌릴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이제는 ‘플리퍼 테크놀로

지’(Flifer Technologies)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채굴 회사까지 차렸다. 지난 4월 채굴 첫날에는 3달러를 버는 데 4천시간 갈수록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산은 CNBC에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벌려고 가상화폐 채굴을 시작했다”면서 “가상화폐 채굴은 금이나 다이아몬드 채굴과 비슷하다. 삽을 사용하는 대신에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산 남매는 가상화폐 채굴 수입을 재투자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수익으로 대학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밝혔다. /연합뉴스



카불공항 테러로 숨진 미군 추모 집회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로런스에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자살폭탄 테러로 숨진 미군 13명 중 한 명인 조해니 로사리오 피차르도(25) 병장을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여성이 고인의 사진을 든 채 이름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앞둔 푸틴, 군인과 검·경에 현금 지급

“여당 지지율 올리기 위한 것” 의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인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등에게 1만5000루블(2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일 타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지난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개의 대통령령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군과 경찰, 검찰, 연방 수사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달 안에 일시불로 1인당 1만5000루블을 받게 된다고 타스는 전했다.

대통령령 문서에선 지원의 목적이 사회적 복지 보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개최한 전당대회에 참석해 군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연금수급자

들에 1만 루블(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일련의 조치들이 이달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크렘린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현재 수감 중인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주변 인사들은 속속 해외로 출국하고 있다. 인터넷팩스 통신은 지난 30일 자체 소식통을 인용, 나발니의 대변인으로 일해온 카라 아르미슈(31)가 핀란드 헬싱키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나발니가 세운 ‘반부패 재단’ 변호사이자 나발니의 가장 가까운 여성 동지인 류보피 소블(33)이 역시 방위 규정 위반과 관련한 주거 제한 등의 법원 판결을 받은 지 닷새 만에 해외로 몸을 피했다. /연합뉴스

영국, 결핵 걸린 알파카 한마리에 시끌

정부 살처분 추진 주인은 소송

법원서 최종 결정 내려 안락사

영국 동물단체 등의 옹호 속에 주인이 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까지 펼치면서 살리려고 노력했던 알파카가 결국 안락사 처리됐다.

지난 31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잉글랜드 남서부 브리스틀 인근에서 헬렌 맥도널드 씨가 운영하는 농장에 식품·환경·지역문제부 직원들이 오전 11시(영국서머타임·BST)에 도착했다. 경찰 호위와 함께 도착한 이들은 소 결핵증(bovine tuberculosis·BTB)에 걸린 제로니모라는 이름을 가진 알파카를 우리에서 꺼낸 뒤 말운반용 화물차에 실었다. 차량은 다시 경찰차 호위 하에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시위대를 지나 농장을 떠났다. 시위대는 정부가 제로니모를 끌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부터 농장에 진을 치고 대기했다. 식품·환경·지역문제부 대변인은 이날 제로니모

가 살처분됐으며, 가족 병리학자가 부검 및 조직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1년간 잉글랜드에서 소 2만8356마리가 BTB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도살됐다. 지난해 낙타와 라마, 알파카 등 낙타과 동물 205마리 역시 살처분됐다.

제로니모는 2017년 뉴질랜드에서 잉글랜드로 건너왔는데, 그해 8월과 11월 두 차례 BTB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후 농장에서 격리됐고, 정부는 2018년 7월 법원에 살처분 명령을 신청했다. 맥도널드씨는 이를 막기 위해 수년간 법정 다툼을 진행했지만,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제로니모 살처분 영장을 9월 4일까지 집행하라고 결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14만명 이상이 살처분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서명했고, 이는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보내졌다. 동물애호가들은 물론 존슨 총리의 부친인 스탠리 존슨도 서명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결국 이를 막지 못했다. /연합뉴스

“유아·청소년 풍진·백일해 백신, 코로나19 중증 막아준다”

미연구팀 “코로나 사망 크게 낮춰”

유아·청소년기 필수 예방접종인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 백신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 브리검 여성병원 앤드루 리치먼드나 마야다스 교수팀은 1일 의학저널 ‘메디’(Med)에서 MMR·Tdap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중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혈액 내 면역세포 실험과 입원·사망

률 분석을 통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백신은 인체 면역체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같은 병원체를 인지하고 이와 싸우는 기억 T세포와 B 세포 등을 만들어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연구팀은 MMR·Tdap백신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복기 코로나19 환자의 혈액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혈액에서 기억 T세포를 채취한 뒤 이들 T세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및 MMR·Tdap 백신 항원과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했다.

연구팀은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진과 협력해 지난해 3월 8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오하이오주와 플로리다주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7만5000명의 치료 기록을 분석해 MMR·Tdap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중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전에 MMR 예방 접종을 받은 환자들은 접종받지 않은 환자보다 입원율이 38% 낮았고 중환자실(ICU) 입원·사망률은 32% 감소했다. 또 Tdap 예방 접종을 받은 환자들도 입원율과 ICU 입원·사망률이 각각 23%와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행복이벤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보통예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금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사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자금자동이체, 신탁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혜후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 (응모방식은 창구방문)

-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탁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광주 북구 문흥로 38) **266-4150**

매곡지점
(북구 설죽로 315번길) **572-4150**

양산지점
(북구 양산로 55) **573-4150**

침단지점
(북구 침단신로 91번길2-2) **576-4150**

운암지점
(북구 북문대로 89) **528-4150**

동광주지점
(북구 동문대로 187) **264-4150**

동림지점
(북구 북문대로 238) **513-4150**

각화지점
(북구 동문대로 283, 285) **263-4150**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신탁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